

# 초월 인간 심리란?

Joseph H. Pearl · 문정화

Oklahoma State University

## 역사와 배경

초월인간 심리의 역사는 짧지만 급속히 성장하는 연구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인본주의 심리학의 한 파생물이라 여겨진다. 이 학문은 1960년대 후반에 최초로 정통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해서 최근에 여러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69년 봄에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창간호가 출판되었고 전문 연구단체로서 초월인간 심리학회가 1971년 창설되었다. 초월인간심리라는 신선한 충격을 던진 표제를 사용한 초창기 학자들은 A. Sutich, A. Maslow 등이 있다(Sutich, 1976).

이들은 Sutich의 주장대로 이 분야가 “새롭고 적절한 심리학의 연구 영역”이라는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였다. 초월인간 심리라는 용어가 1960년대 후반 이전에는 사용된 기록이 없으나, 미국의 심리학자자겸 철학자인 William James와 스위스의 심리학자 Carl Jung 등이 훨씬 전에 단순히 “초월인간적인(transpersonal)”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Vich, 1989).

이 분야의 초기 대표적 학자중의 한사람인 Robert Ornstein은 그의 저서 “인간 의식의 성격”의 서문에

서 다음과 같이 초월인간 심리 연구 분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본래 심리학은 의식의 과학이다. 심리학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리학의 연구나, 인간행동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좀더 폭넓게 규명해 보려한다. 심리학자들은 최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인간의식에는 어떠한 차원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등의 학문의 기본적 문제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60년 이상 주요 학문 영역에서 관심 밖의 것으로 배제되어 학계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계의 혁명적 변화는 없었으나 문화 및 과학에서의 관심상의 진보가 있었다. 그 문화의 구성원인 학자들은 의식의 “변화된 상태”, 묵상, 환각 상태, 예전이나 현대의 종교들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호응한다. 본 저서의 의도는 심리학의 여러 관점 중 미진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본령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심리학의 제문제에 접하는 가능한 수단들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의 부차적인 면을 조사하는데 그치곤 한다. 의식 연구의 중심 목표, 전후관계, 원동력들은 무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심

리학의 근본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William James와 Carl Jung 같은 다른 유파의 의식학도들의 연구 및 수피교(Sufism), 요가, 불교와 같은 다른 문화권의 “내밀한” 심리학을 근래의 연구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p.xi).

1960년대 이전의 20세기 미국 심리학은 두개의 이론적인 관점이 주로 지배해 왔다. 즉 그들의 하나는 Ivan Pavlov, John Watson, B. F. Skinner 등의 연구가 주종이 되는 행동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Sigmund Freud와 그의 추종자들의 연구로 이루어진 정신분석학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 두가지 중요한 관점이 따로 부상했다. 1960년대 초반에 Abraham Maslow와 Carl Rogers의 연구에 의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m)과 1960년대 후반에 출현한 초월인간 심리학이 그것이다. 인본주의와 초월인간 심리학은 주로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일정한 단면에 대항하는 반응으로서 발달되었는데, 특별히 주관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자아” 또는 “나”의 존재와 의식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발달시켰다.

행동주의는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에서 “의식”이나 주관적으로 경험된 자아와 같은 개념의 타당성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행동주의는,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처럼 실증과학이 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치는 공개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것들 뿐이라고 주장한다. 심리학에서 객관적인 것은 관찰된 행동을 의미한다. 의식이나 경험된 자아는 근원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한다. 물론 의식이나 경험된 자아는 공적으로 관찰될 만한 행동으로부터 유추되어질 수 있으나 행동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 만약 문제의 실제적인 수치가 관찰된 행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때는 그 행동의 이면이나 저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과정

이나 실체를 가정한다는 것은 행동주의자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인다.

반면 정신분석학자들은 의식의 존재나 경험된 자아를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분석학자들에게는 인간행동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의식적인 마음이다. 즉 내가 의식적으로 깨닫고 있는 “나”는 단지 나의 전체 정신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고, 전체정신의 대부분은 의식이 표면 밑에 숨어 있으며 이는 마치 빙산의 보다 큰 부분이 대양의 표면 밑바닥에 있는 것과 같다.

인본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실제적인 경험, 즉 의식과 자아의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을 결합시키는 심리학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반영한다. 객관적으로 관찰될 만한 행동만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행동주의는 분명히 이와같은 심리학을 허용할 수 없다. 행동주의자들의 관점의 부적합성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농담에 잘 나타난다. 거리에서 서로 만난 두 사람의 행동주의자들은 서로 서로 “나 어때?”(“How am I?”)하고 묻는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질문은 객관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는 내년부터 그리고 “나”라는 주관적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가 한계가 큰 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주의가 하급동물의 행동을 설명하고 인간행동중에서 훨씬 단순하고, 저차원적인 행동을 설명하는데는 훌륭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식과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친밀감, 창조성, 자유의지 등의 자아에 대한 독특한 인간고유 능력에 의지하는 여러가지 인간행동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자들의 방식이 부적합하

다고 인본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정신분석학자들도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견해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인본주의의 기본 비평은 정신분석학이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정신병리학(이는 사실 Freud의 주요 관심사이었다)을 설명하는데는 가치가 있고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건전한 인간 행동 및 그 발달을 설명하는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행동과 그 발달, 그리고 고차원의 인간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중심주제는 주관적으로 경험된 자아가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 구조이고 심리적 건강이 자아의 고유한 성질이 완전히 발달한 것, 즉 자아 실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로서 Maslow는 특별히 심리적인 건강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Maslow(1971)가 “인간성의 보다 고차원적 범위”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신비스런 체험, 명상 또는 요가의 상태, 그리고 다른 종류의 다양한 변화된 의식상태와 같은 현상과 마주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자아나 외부의 큰 현실에 직접적이면서 주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초월함을 포함하는 것 같다.

인생을 마치기 직전, Maslow는 자아실현 단계를 넘어선 자아 발달의 가능성과 개인이 인본주의 심리학자에 의해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자아와 경험한계를 초월하는 발달단계의 가능성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나는 제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이 인간적인 것, 인간의 정제, 자기실현 등을 넘어서서 인간의 욕구와 관심 보다는 우주에 초점을 맞춘 초개인적, 초인간적인 더 높은 제 4심리학을 위한 전이적 준비 단계라고 생각한다(p.iii, iv)”. 이리하여 초월인간심리가 시작되었다. 이 초월인간심리의 주제는 전통적으로 과학보다 종교와 철학에 더

관련된 것이다. 즉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명백한 것보다 더 폭넓은, 보다 기본적인 실재(이러한 보다 기본적인 실재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흔한 형용사는 “정신적”이다)에 참가하며 우리 각자는 정상적인 인간 발달(Sigmund Freud, Erik Erikson, Jean Piaget 같은 정통 서구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류이며, 인본주의 심리학이 자기 실현으로 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초월인간 발달, 즉 우리의 개별적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보다 기본적인 실재에 동참하고 일체가 되는 주관적 경험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물론 초월인간적 관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신적 전통은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동양에서 여러 세기동안 인간성과 인간 발달의 초인간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가르쳐 왔다. 초월인간 심리학자들은 이 전통의 발견을 현대과학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서구 심리학사 내에서조차도 초월 인간의 관점에 대한 몇가지 표현들이 예전에도 있었다. William James의 “종교경험의 다양성”(1929)이란 저서가 현대 초월 인간 심리학자들의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 저작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변화된 의식상태에 관한 의견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인간의 정상적 각성상태, 소위 이성적 의식상태는 의식의 특수한 한 형태에 불과하다. 반면 그 의식 속에는 가장 희미한 그물로 구분되어 전혀 다른 의식의 형태들이 잠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의식의 존재를 의심해 보지 않고도 일생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자극이 이루어질 경우, 한번의 자극에 그 자체로서 완벽한, 어딘가에 그들 나름대로의 적용과 적용의 분야가 존재하는 명확한 형태의 정신상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식의 다른 형태를 전혀 무시해버리는 식의 우주를 전체로 설명하는

행위가 종국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식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범한 의식과는 너무나 단절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식을 제공해 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비록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지도 못한다해도 어떤 영역을 개척해줄 수 있다. 어쨌든 이들은 실제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조기에 막는 것을 금한다(pp. 378-379).

Carl Jung의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 또한 강한 초월 인간의 기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가끔 초월 인간적 무의식 transpersonal unconscious라고 언급되었던) 그의 집합적 무의식의 개념이 그러하다. 게다가 그의 초월인간 심리현상에 대한 마음의 열음과 동양,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의 정신 전통에 대한 관심은 많은 현대 초월인간 심리학자들의 매력을 끌었다.

## 정의

초월인간 심리학의 정의는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으며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Walsh와 Vaughan(1980)이 지적했듯이 초월인간 심리학이 의식의 변화된 상태를 다루는 한에서는 어떤 변화된 상태의 경험을 다른(정상) 상태를 위해 고안된 개념조직과 언어로 전환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Tart(1975 & 1956)는 이러한 정상 개념 및 언어에의 의존과 두 상태사이의 문제점을 상세히 다루었다.

“초월인간”이란 용어는 문자 그대로 개개의 인간 혹은 심리를 벗어났거나 뛰어넘은 상태를 의미한다.

Grof(1975)는 초월인간이란 말이 “정상적인 ego의 영역과 시간 및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의식이 확장되었다는 개인의 느낌”(p.154)으로 특징 지워지는 경험들이라고 묘사한다. 초월인간 심리학의 정의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Sutich(1969)가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창간호에 실은 글이다.

초월인간 심리학은 실증 혹은 행동주의 이론(제일 역학), 고전적 심리분석이론(제이 역학), 혹은 인본주의 심리학(제삼 역학) 속에 체계적 지위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궁극적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군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에 부여된 명칭이다. 이 것 탄생한 초월인간 심리학(제사·역학)은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경험적, 과학적인 연구이며 이에 상응하는 발견에 대한 보충이다-개인 및 전 종족의 meta의 필요성, 궁극적 가치, 통일된 의식, 최고 극치의 경험들, B-가치, 황홀, 신비한 경험, 경외감, 존재, 자아실현, 정수, 축복, 경이, 궁극적 의미, 자아의 초월, 정신, 하나됨, 우주적 인식, 개인 및 전종족의 상승작용, 인간간의 고차원적 접촉, 일상생활의 성례화, 초월적 현상들, 우주적 자기 유머와 장난기, 감각의 극대 인식, 대응 및 표현, 연관 개념, 경험 및 활동들이 다.

보다 최근에 Walsh와 Vaughan(1980)은 약간 간단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초월인간 심리학은 최적의 심리학적 건강과 복지의 연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심리학적 탐구의 분야를 확장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이 학문은 의식 상태의 광범위한 범위를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한다. 어떤 의식의 상태에서는 identity가 자아와 인품의 통상적 한계너머로 확장될 수 있다. 초월 인간 심리치료는 전통적 분야와 관심사는 물론이고,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대한 관심과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건강 수준을 초월한 인식을 추가시킨다. 의식을

## 인간 진화 및 인간 발달

변조시키는 점의 중요성과 초월적 경험과 identity의 유효함이 확인된다(p.16).

초월인간 심리학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발전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심리학 내에서의 한 분야로서의 합법성조차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에 미국 심리학회(APA)내에 초월 인간 심리 분과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APA의 구조는 분과라고 일컬어지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심리 분석학과 같은 분과를 포함해서 47개 관심단체가 있다). 아직까지 미국 심리학회는 초월 인간 심리분과에 대한 모든 제안을 거절해왔다. 그러한 분과 설립에 반대하는 주요 학자에는 잘 알려진 인본주의 심리학자 Rollo May가 있다.

May(1986)는 심리학 분야가 자아의 발전, 그러한 발전의 최고 수준이 자기실현에 있음을 연구하는 선까지로 제한되어야 하며, 초월인간적 발전을 고려하는 인간의 표본은 개개의 자아의 한계를 초월한 발전으로 심리학 보다는 종교에 귀속됨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May의 결론에 따르면 “초월 인간 심리 분야는 심리학과 종교의 분야를 극도로 혼란시킬 것이며 따라서 거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초월 인간 심리학회지의 편집자인 Vich(1986)는 May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분명히 초월 인간 심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 속에는 교리도 없고, 계명도, 신학도, 교회도 없다. 초월 인간심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리학의 방법들과 관행 및 역사를 공유하면서 심리학내의 새로운 방향설정이다.”

Vich는 나아가 초월 인간 심리에 대한 May의 실제 문제는 단순히 그가 초월 인간 행동 과정 및 경험이 실제로 존재함을 믿지 않는 데 있다고 암시한다.

초월인간적 관점의 중심에는 의식이 인간 진화 및 발달에서의 관심의 중심변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종족들의 진화를 의식의 진화라고 여겨지며 개인의 발달은 의식의 발달로 간주된다. 초월인간 심리학자들의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의식의 진화 및 발달의 모델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인기있는 모델은 아마 Ken Wilber의 것이다. Wilber(1980)는 진화를 세단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최초의 단계를 Wilber는 “인간 이전 단계”라고 칭한다. 인간 이전 단계는 주관적 의식을 행사할 수 없는, 즉 자아 “나”를 경험할 수 없는 하등 동물들로 대표된다. 둘째 단계를 Wilber는 “인간적 단계”라고 칭한다. 이 단계의 특징은 주관적 의식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종만이 이 단계의 의식 수준까지 진화하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고래, 돌고래 및 고등 영장류의 이 수준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긴 하였지만 Wilber(1981)는 인간적 수준이 대부분의 인간의 공통 특징인 반면, 세번째 단계 즉 초인적 단계-역사적으로 예수와 부처가 가장 잘 알려진 예이다-까지 진화해 나간 예외적 경우들이 있음을 말한다. 초월 인간적 수준에서는 인간적 수준의 모든 능력이 유지되지만-개인은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고 자신을 분리 “나”로 경험할 수 있다.-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근본 정체를 종교에서 소위 말하는 신두(godhead) 상태의 궁극적 바탕에서 직접 경험(단순히 이성으로 추론하거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모든 합법적 정신전통의 중심에는 비록 각자 특유의 방법으로 그 정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궁극적 정체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러한 깨달음이

의식의 진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보편화되어 간다고 Wilber는 주장한다.

한 인간의 일생동안에 의식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평행의 길을 걷는다. 신생아는 주위 환경과 최초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자신을 독립된 자아로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이 인간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년기에 다다르면 의식의 개인적 수준이 두드러진다.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독특함에 관심을 가지고 강한 자의식을 보인다. 심리적 발달이 전전한 정도만큼 성인의 최소한 초월인간적 수준으로의 전이를 시작한다. 이는 자의식이 감소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자신의 특별함에 대한 관심 및 결혼과 친자관계 등의 친근한 관계에서 타인과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면에서 반영된다. 발달이 전전하지 못한 정도만큼 반면 성인들은 특징적으로 의식의 인간적 차원에 고정되어 있게 되고 따라서 계속하여 자의식, 자기 중심성 및 (Erikson의 용어를 사용하면, 1963) 친근감보다는 고립감을 갖는다.

## 초월 인간 심리의 장래

초월 인간 심리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일은 너무 이르지 모르지만, 그 장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장래에 대한 고찰은 세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내용, 방법론, 그리고 그 예.

가장 확고한 결론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려질 수 있다. 초월 인간 심리가 정통서구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의식의 성질 및 기능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적법성을 부여했다는 점은 재빠르게 명백해지고 있다.

그 예로서는 심리 치료의 보조물로서 환각제 복용 경험(Cardwell, 1968; Grof, 1975); 신비스런 종교 경험(Deikman, 1966; Pahnke & Richards, 1966; Pearl, 1982); 심리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간의 관계(Pearl, 1984, 1988; Wilber, 1981; Wilber, Engler & Brown, 1986);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적 훈련 및 기술로서의 명상(Benson, 1975; Carrington, 1978; Murphy & Donovan, 1988; Shapiro, 1980; Wilber et al., 1986);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로서의 생체 자기제어('biofeedback' Brown, 1974; Green, E. & Green, A., 1977; & Yates, 1981) 등이 있다.

초월 인간 심리학자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과 더불어 전통 심리학의 방법론의 적절성에 의문을 최근에 제기한 학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부류에 속한다. 전통적 방법론은 비공개되었지만 관찰 가능한 사건들을 거부하고, 대신 실험실 연구, 통제집단, 무작위표본조사, 통계 분석등에 중점을 둔다. 이들의 논지의 초점은 이러한 방법론이 자연과학에는 적절하지만, 인간의 연구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인간성의 진수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서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선천적으로 사적인 의식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주관적 경험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두는 새로운 방법론들이 탐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론 위에 근거한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교, 철학 혹은 문학에 보다 가깝다는 비평을 당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몇몇 초월 인간 심리 사상가들은 과학자체가 새로운 초인적 패러다임의 지경에 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예를 들어, Capra(1975)는 다양한 신비스런 종교 경험에서 발견되는 실제의 묘사와 현재 물리학의 주요 이론들-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최근에

제시한 실재의 묘사와 놀라울 정도로 평행되는 사항들이 많음을 지적한다. 그의 추론에 의하면 수리는 역사적으로 상호 배타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두 현상학적 전통들이 극적으로 합쳐지는 시점에 와 있을는지 모른다. 그 두 전통중의 하나는 객관적·공적 관찰에 근거한 과학이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선천적으로 주관적인 직관에 바탕을 둔 종교이다. 따라서 과학과 종교의 통합을 바라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 셈이다. 다시금 이러한 전망이 달성되었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 References

- Benson, H.(1975). *The relaxation response*. New York: Avon.
- Brown, B.(1974). *New mind, new body: Bio-feedback, new directions for the mind*. New York: Harper & Row.
- Caldwell, W.V.(1968). *LSD psychotherapy: An exploration of psychedelic and psycholytic therapy*. New York: Grove Press.
- Capra, F.(1975). *The tao of physics*. Berkeley, Calif.: Shambhala.
- Carrington, P.(1978). *Freedom in Meditation*. New York: Anchor Press.
- Deikman, A.(1966). Deautomatization and the mystic experience. *Psychiatry*, 29, 324-338.
-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W. Norton.
- Green, E. & Green, A.(1977). *Beyond biofeedback*. New York: Delacorte.
- Grof, S.(1975). *Realms of the human unconscious: Observations from LSD research*. New York: Viking.
- James, W.(1929).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 York: Modern Library.
- Jung, C.G.(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Collected works, vol. 17).
- Maslow, A.(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2nd ed.). New York: D. Van Nostrand.
- Maslow, A.(1971).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 May, R.(1986, May). Against a division of transpersonal psychology(Letter to the editor). *APA Monitor*.
- Murphy, M. & Donovan, S.(1988).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meditation: A review of contemporary meditation research with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1931-1988*. San Rafael, CA: Esalen Institute.
- Pahnke, W. & Richards, W.(1966). Implications of LSD and experimental mysticism.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 175-208.
- Pearl, J.H.(1982). Piaget, Bergson, and the mystical experience. *The American Theosophist*, 70(2), 30-35.
- Pearl, J.H.(1984). A reconciliation of the Freudian and humanistic/transpersonal views of human natur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11-16.
- Pearl, J.H.(1988). Meditation and parenthood. *Holistic Education Review*, 1(3), 19-22.
- Severin, F.(1974, July). What humanistic psychology is about. *Association for Humanistic Psychology Newsletter*.
- Shapiro, D.H.(1980). *Meditation: Self-regulation strategy and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New York: Aldine.
- Sutich, A.J.(1969). Some considerations regarding transpersonal psychology.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1(1), 11-20.
- Sutich, A.J.(1976). The emergence of the transpersonal orientation: A personal account.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8(1), 5-19.
- Tageson, C.W.(1982). *Humanistic psychology: A synthesis*. Homewood, Ill.: Dorsey Press.
- Tart, C.T.(1975a). *States of Consciousness*. New York: E. P. Dutton.
- Tart, C.T.(1975b). *Transpersonal Psychologies*. New York: Harper & Row.
- Vich, M.(1986). Debating the legitimacy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argument for. *The Common Boundary: Between Spirituality and Psychotherapy*, 8(4).
- Vich, M.(1988). Some historical sources of the term "transpersonal."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0(2), 107-110.  
Walsh, R. & Vaughan, F.(1980). *Beyond ego: Transpersonal dimensions in psychology*. Los Angeles: J.P. Tarcher.  
Wilber, K.(1980, Fall). The pre/trans fallacy. *ReVision*, pp. 51-71.  
Wilber, K.(1981). *Up from Eden*. New York: Doubleday.

Wilber, K., Engler, J., & Brown, D.(1986).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Conventional and contemplative perspectives on development*. Boston: Shambhala.  
Yates, A.J.(1980). *Biofeedback and the modification of behavior*. New York: Plenum.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0. Vol. 3, No. 1, 100-108

#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ranspersonal Psychology

Joseph H. Pearl & Jeong-hwa Moon

Transpersonal psychology has a short history, but is a rapidly developing field of study. It first gained prominence in the late 1960's. as an outgrowth of humanistic psychology, and quickly moved, towards distinguishing term in the title of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was made in 1968 by its founding editors, Anthony Sutich, Abraham Maslow and others in order to reflect their vision of a 'new and proper area of psychological inquiry.'

Prior to the 1960's, American psych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has been dominated by two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s: behaviorism and psychoanalysis. But during the 1960's, two other important perspectives emerged: humanistic psychology and transpersonal psychology. Humanistic and transpersonal psychology developed largely as a reaction against certain aspects of behaviorism and psychoanalysis. As the pioneers of humanistic psychology, Abraham Maslow in particular, began to examine the human potential for psychological health and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they came across such phenomena as peak experiences, meditative and yogic states, and various other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all of which seemed to involve a transcendence of the individual ego-self and direct, subjective participation in a larger reality. Maslow called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beyond self-actualization, development in which the individual transcended the limits of identity and experience that had been considered ultimate by humanistic psychologists. Transpersonal psychology is associated with a direct, subjective experience of our oneness with the more fundamental reality.

'Transpersonal' literally means across or beyond the individual person or psyche. It is characterized by the



feeling of the individual that his consciousness expands beyond the usual ego boundaries and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Transpersonal psychologists are interested in those ultimate human capacities and potentialities that have no systematic place in the so-called legitimate psychology. While the definition of transpersonal psychology is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t is apparent that transpersonal psychology had reawakened interest in a number of long-forgotten topics: mystical religious experi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spiritual development, meditation, and others.